2021년 국방부 업무보고

2021. 1. 21.(목)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



국 방 부

목 차

Ⅰ. 4년 추진성과와 평가 ····· 1

Ⅱ.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12

Ⅲ. 2021년 핵심추진과제

1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 14

2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 가속화 추진 ·· 16

3 미래 주도 국방역량 구축 ····· 18

4 '한국판 뉴딜' 국방분야 적용 ····· 22

5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환경 조성 ····· 24

Ⅳ. 2021년 '국방' 이렇게 바뀝니다 ····· 31

【별첨1】 4년간 성과 / '21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Ⅰ. 4년 추진성과와 평가

우리 軍은 지난 4년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대통령님의 통수지침과 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구현에 진력

통 수 지 침

-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
- 국방개혁 강력 추진 및 전작권 전환 준비 가속화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주변국과 국방협력 발전
- 민주사회의 군대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국방운영체계 혁신

국방분야 국정과제

-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 국방개혁 및 국방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 방위산업 투명성 강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방위산업 육성
-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1. 주요 정책성과

1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 추진실적

❶ 北 위협 대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및 안정적 상황관리

○ 긴밀한 韓美 공조 下 연합정보감시태세 유지

* 北 미사일(발사체) 발사 탐지 및 대응

○ 현장중심의 군사대비태세 강화로 군사상황의 안정적 관리

* 귀순자 유도작전, 북한 단속정 NLL 월선 퇴거작전, 유·무인 선박 발견 후 조치, 북한 상선 퇴거조치

* 삼척항 목선('19년), 강화도 월북('20년) 사건 등 경계력 보강을 위해 △ 해상·해안 경계 △ GP·GOP경계 △ 주둔지경계 등 경계작전 후속조치 적극 추진 中

○ 조정된 방식의 韓美 연합연습·훈련으로 고도의 연합준비태세 유지

* 전구급 연합지휘소 연습(CPX), 연합 야외기동훈련(FTX)

❷ 北 핵·미사일 위협 관련 억제·대응 능력 강화

○ F-35A, HUAV,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TAURUS),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철매-Ⅱ 성능개량 등 고위력·초정밀 타격능력 및 北 미사일 감시·요격 능력 확충

○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한미 공동연구 실시 ('20. 9월)

○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향후 활동과제 설정 ('20. 10월)

❸ 주변국 작전활동 감시 및 영공침범 시 단호한 퇴거작전 시행

○ 주변국 군용기 KADIZ 진입 시 대응

○ 러시아 군용기 독도영공 침범 시, 국제법 준수 下 퇴거작전 시행('20. 7. 23.)

❹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비 우리 軍의 임무수행태세 강화

○ 대테러부대 추가 지정, 장비·물자 보강, 훈련장 신설 등 작전수행능력 강화

* 대테러기관단총, 대테러 작전차량 등 첨단 장비·물자 보강 中
* 제2 軍대테러 종합훈련장 추가 신설 추진

○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 사이버작전사령부 합동부대지정 ('19.2월), 인력보강으로 합동작전 역량 보강
*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서를 기준으로 「국방사이버안보정책서」 수립 ('19. 9월)
* 사이버 특기(군인, '19년)·직렬(군무원, '20년) 신설로 사이버인력의 전문적 인사관리 기반 조성

○ 국방 우주력 발전

* 軍 우주 감시능력 및 위성통신 역량 강화(△'19년 우주작전대 창설 △'20년 軍 독자 통신위성 발사)
* 韓美 공조 下 우주작전 수행능력 제고(연합연습 시 韓美 우주통합팀 운영, 다국적 우주연습 참가 등)

□ 정책효과

❶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

❷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대비 억제 및 대응능력을 구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軍 위상 제고**

2 한반도 평화 조성에 기여

□ 추진실적

❶ 판문점선언의 군사분야 합의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남북군사당국간 '9·19 군사합의' 체결** ('18. 9. 19.)

*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로 체결, 남북 정상 임석 下 정전협정 정신 구현 및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실제적 이행 조치 포함

❷ '9·19 군사합의' 이행으로 지난 2년여 동안 남북간 우발적 충돌방지 등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구체적·실효적으로 기여**

○ **상호적대행위 중지**를 통해 **군사적 안정성 유지**

* '9·19 군사합의' 이전 북한의 DMZ 內 총·포격 도발, 경비함·단속정 NLL 침범 및 무인기 영공침범 사례 다수

○ **(GP 철수)** 남북 11개 GP 시범철수 ('18. 11월) 및 현장검증 ('18. 12월)

* 철수 GP와 연계 'DMZ 평화의 길' 운영

○ **(JSA비무장화)** 초소·화기 철수, 인원조정 등 비무장화 조치 완료 ('18. 10월)

* 비무장 경비인원 (남북 각 35명) 운용, CCTV 영상공유 등
* JSA 남측지역 견학 재개 ('19. 5. 1. 부) 이후 2만 4천여 명 방문

○ **(공동유해발굴)** 비무장지대 內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19. 4월 ~ '20. 11월)

* 현재까지 유해 2,300여 점, 유품 85,000여 점 발굴, 9명의 국군전사자 신원확인
* '제7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 ('20. 9. 27.)을 통해 화살머리고지 발굴 유해 103구 송환

○ **(한강하구 자유항행)** 공동수로조사 ('18. 12월) 및 해도 제작·전달 ('19. 1월)

* 지자체·민간단체 한강하구 우리해역 內 시범항행 (2회, '19. 4·7월)

❸ 평화 체험 등 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공감대 확산

○ 「DMZ 평화의 길 (파주·철원·고성 / 3개 지역)」 조성 및 운용 지원

* '19. 4월 ~ 12월간 약 15,000여 명 방문 (현재는 ASF·코로나 상황으로 잠정 중단)

○ 서해 5도 주민 생활 여건 개선

* 서해 5도 어장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19. 2월), 연평도 등대 재점등 ('19. 5월) 등

○ 평화정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對국민 홍보 및 군비통제 추진여건 마련

* '9·19군사합의 1주년 기념', 특별기획전시회 개최 ('19. 4. 25. ~ 6. 9, 총 35,000여 명 관람)
* △ 군비통제 세미나 (7회) △ 서울안보대화 (9월)에서 UN관계자 '군비통제 모범사례' 평가 등

❹ **한반도 안보와 평화조성을 위한 주변국과의 대화·협력 확대**

○ (한·중) 양국 국방교류협력 정상화 및 위기관리체계 정착 추진
* △ 軍고위·실무급 인사 상호방문 및 국방정례회의 및 부대·기관 간 교류 등 재활성화, △ 해·공군 간 직통전화 양해각서 개정 합의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한·일) 현안문제로 경색된 관계 속에서 비대면 교류를 지속 유지, 한·일 관계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
* 다자·양자 화상회의(한·미·일 DTT, 한·일 실무회의) 및 무관부 등 외교채널 소통 활성화

○ (한·러) 수교 30주년 계기 포괄적 수준의 국방교류협력 확대 추진
* 고위급 교류를 포함 각 군 공조회의 등 국방·군사교류 활성화

○ 신남방국가와 호혜적 국방·방산협력 추진을 통해 **국방교류협력 확대**
* 주요 방산수출국과 방산협력을 통한 역내 평화유지 역량 강화
* 퇴역함정 양도, 연합훈련 참가 등 군수협력 및 훈련 교류 활성화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불구 비대면 회의 등을 통해 중단없는 국방외교 추동력 유지

❺ 서울안보대화 참가국 증가 및 인원 격상(고위국방관료·안보전문가 등) 등 국제안보대화체로서의 **위상 제고**
* '17년 40개국(3개 국제기구) 620여 명 참가 → '19년 53개국(2개 국제기구) 800여 명 참가 ('20년은 코로나19 상황 고려 화상 세미나로 개최)

□ 정책효과

❶ **(국가책무 이행)** 국군 및 참전국 전사자 유해·유품 발굴 및 신원 확인을 위한 **비무장지대 內 최초 화살머리고지일대 유해발굴 실시**

❷ **(접경지역 평화조성)** '9·19 군사합의' 이행과 연계 'DMZ 평화의 길'(고성·철원·파주), 'JSA 우리측지역 견학'을 통해 **국민에게 평화체험 기회 제공**

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역내 긴장 완화 및 주변국의 건설적 역할 견인 노력 등 **역내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

❹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우리 국방·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신남방·신북방정책을 지원하는 등 **국방외교의 지평 확대**

3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 추진 가속화

□ 추진실적

❶ **(미래연합사 검증평가)** '19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평가 시행, **'20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 시행기준 대부분 충족**

* '20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간 FOC 검증평가 예행연습 시행

❷ **(전작권 전환조건 충족)**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통해 **연합방위 주도와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 여부 韓美 공동평가**

* '20년 韓美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환조건 충족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

❸ **(미래 연합지휘구조 발전)** '18년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 연합지휘구조 기본안* 확정, **'20년 전략문서 공동초안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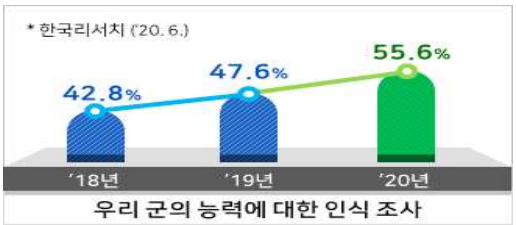
* 現 연합사 체제를 유지, 한국군 4성 장성을 미래연합군사령관으로 임명 등

□ 정책효과

❶ **(전작권 전환 여건조성)** FOC 검증평가 시행 준비를 완료함으로써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여건조성

○ '우리 군이 전작권 전환 능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라는 응답* 상승

* ('18년) 42.8 % → ('19년) 47.6 % → **('20년) 55.6 %, 12.8%p ↑ ('18년 대비)**



우리 군의 능력에 대한 인식 조사

❷ **(방위역량 확충)** 韓美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우리 軍의 역량 신장

○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지속적인 방위력개선비 증액***으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역량 확보**

* ('18년) 13.5조원 → ('19년) 15.4조원 → ('20년) 16.7조원 → **('21년) 17조원, 25.9%p ↑ ('18년 대비)**

❸ **(긍정적 국민인식 확산)** 韓美 간 미래 연합지휘구조 합의로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동맹이 굳건할 것'이라는 인식* 증가

* ('18년) 63.3 % → ('19년) 64.5 %→ **('20년) 67.4 %, 4.1 %p ↑ ('18년 대비)**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 조사

4 국방개혁 2.0 강력 추진으로 '강군 육성' 발판 마련

□ 추진실적

❶ (군구조)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부합된 **정예 군사력 구조**로 발전

○ **(지휘구조)** 우리 군 주도의 **전구작전 지휘에 최적화된 지휘구조로 개편**

* 전작권 전환과 연계, 합참과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기능 배분 및 편성 발전

○ **(부대구조)** 병력집약형 구조에서 **기술집약형 부대구조로 개편**

- **(육군)** 병력 감축과 연계, **전투효율성이 강화된 구조로 정예화 개편**

* (창설) 지상작전사령부, 동원전력사령부, 신속대응사단, 군수지원여단 등
* (해체) 1·3야전군사령부, 2·20·26·30사단, 2·3군지사, 201·203특공여단 등

- **(해군/해병대) 수상·수중·항공 입체전력의 효율성 강화**

* (창설) 해군 선견작전대대, 해병 다련장사격대 등

- **(공군) 전략적 억제 및 항공우주 작전역량 강화**

* (창설) 정찰비행단, 천궁포대 등

- **(국직·합동부대) 민간인력 확대, 합동성 강화 등** 조직 최적화 추진

* 국방부 및 계룡대 근무지원단장 민간전환 등 민간인력 확대, 병력 활용 효율화 추진, 합동군사대학 개편 및 육·해·공군대학 창설 등

○ **(병력구조) 작전·전투 중심으로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 상비병력 감축 : ('18년 말) 59.9만 명 → ('20년 말) 55.5만 명 (-4.4만 명 / '22년 50만 명)

- 장군 정원 조정 : ('18년 말) 436명 → ('20년 말) 390명 (-46명 / '22년 360명)

- 인력구조 조정 : 간부·민간인력 확대 ('19~'20년간 +11,643명), 여군 확대 (+3,367명)

- **예비군간부 복무제도 개선*** 및 **훈련 내실화**** 등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

* 제도개선으로 비상근복무예비군 인원 확대 : ('17년) 269명 → ('20년) 1,769명 **(1,500명↑)**
**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설치 : '24년까지 설치계획 총 40개소 中 12개소 완료(30%)

○ **(전력구조)** 능력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전력구조** 구축

- 우리 軍 주도의 **감시·정찰 및 타격전력 확보** 등 작전적 대응 능력 강화
  *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상륙기동헬기, 장보고-Ⅲ잠수함(KSS-Ⅲ) 등
- **사이버·우주, 테러·재난 대비전력 확보** 등 포괄적 대응 능력 보강
  * 의무후송전용헬기, 대형수송함 등

❷ (방위사업) 효율성·투명성·전문성을 강화하여 국제수준 경쟁력 확보

○ **신속한 국방획득 체계 및 미래 주도형 국방 R&D 체계 개선**

- **첨단기술의 신속한 적용**을 위해 **신속 시범획득사업** 제도 마련('20년)
  * 공격형 드론, 상용 스마트폰 기반 소부대 전투지휘 체계 등 15개 사업(300억 원) 추진
- 미래 도전기술, 민군 협력기술 등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역량 집중** 및 **국방기술 민간이전 활성화**
  * 연구개발(R&D) 예산 : ('17) 2조 7,838억 원 → ('20) 3조 9,191억 원
  * '20년 국방 특허기술 232건 및 기술 마케팅자료 110건 등 342건 공개

○ **국내 방위산업의 생태계 육성 및 수출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 **방산 혁신 클러스터 시범 지정**(경남 창원, '20년), **국내 핵심 부품 국산화 지원** 등 국내 방위산업 역량 강화 추진
  *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 ('19) 139억 원 → ('20) 203억 원 → ('21) 886억 원
- 유도 항공 탄약 공동개발 수주(10억불), 중고 K9 자주포 수출(2.8억불, '17~'20), 함포 부품 수출(1억불, '20. 8월) 등 **방산수출 확대**

□ 정책효과

❶ 현 정부 임기 內 대부분의 개혁완성을 위한 견고한 추진

* 법령 제·개정(74건 중 40건 완료), 예산 확보(50.2조 원, 7.4% 증가)

❷ 국방개혁 2.0 성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통해 **국민적 신뢰 향상**

5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軍 구현

□ 추진실적

❶ 장병 인권강화 및 軍 사법제도 개혁

○ **영창제도 폐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확대 배치*** 등 군 인권보호 기반 구축

* 전문상담관/1인 담당 병사 수 : ('18년) 383명/1,208명 → ('19년) 522명/840명 → ('20년) 633명/620명

○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시행** ('20. 7. 1.),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 전면시행** ('19. 2월) 및 접경지역 중심으로 **병 외박 가능지역 확대** ('19. 2월)

○ **장병 형사재판권 보장**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 **추진** ('20. 7월, 국회제출)

* 군 검찰 각 군 통합 설치, 지휘관의 형 감경권·영장 승인권·일반장교 재판관 지정권 폐지 등

○ 군 범죄피해자 및 군 사망사고 유족에 국선변호사 지원으로 권리행사 보장

* 군 범죄피해자 143명, 군 사망사고 유족 76명에 대한 지원 ('19. 3월 ~ '20. 11월)

❷ 여군 인력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 **여군 비중** 및 **주요직위 보직·진급 지속 확대, 여성 필수시설 확충***

* 주둔지별 최소 1개소 확보 (독립소대급 이상), '20년에 총 1,338동 (562억원) 설치 완료

○ **디지털성범죄 처리기준 신설 및 피해자 보호제도** 보완

* 피해 상담 및 신고시스템 보완, 성고충 전문상담관 등 인력 확대 : ('17년) 22명 → ('20년) 48명

○ 유·사산휴가, 자녀돌봄휴가 등 임신·육아·출산 **지원제도 개선***과 **보육시설 확충****, **가족친화 인증제도 도입확대로 일·생활 균형 도모**

* △ 유사산휴가(임신초기 5→10일 확대, 배우자 3일 신설), △ 자녀돌봄휴가(2~3→10일, 자녀+손자녀로 확대)

** △ 군어린이집 ('17년) 125개소 → ('20년) 139개소 △ 공동육아나눔터 ('17년) 22개소 → ('20년) 45개소

❸ 兵 복무여건 개선 및 직업군인 근무여건 보장

○ **(병사) 생산적 군 복무여건** 조성 및 **삶의 질 향상 대책** 지속 추진

-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병역의무 부담완화 및 조기 사회진출 여건 조성**

* 복무기간 3개월 단축 : (육군) 21개월→18개월, (해군) 23개월→20개월, (공군) 24개월→21개월

-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하여 **전역 시 목돈 마련** 여건 조성,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50%) 및 **자기개발 지원액 확대***

  * 1인당 연간 지원액/자기개발 비용지원 예산 : ('19년) 5만원/20억원 → ('20년) 10만원/80억원

- 장병 급식비 인상, 급식 선택권 보장 등 군 급식 개선 지속 추진

  * 1일 1인 기준 급식비 : ('18년) 7,855원 → ('19년) 8,012원 (2%↑) → ('20년) 8,493원 (6%↑)

○ (직업군인) **기존 관사 거주 허용기준 완화, 전세대부 상환유예 대상 확대***

  * (기존) 자녀가 중·고교 2학년 이상일 경우, 졸업까지 → (개선) 중학교 1학년 이상일 경우, 고교 졸업시까지

❹ 「국가무한책임」 구현을 위한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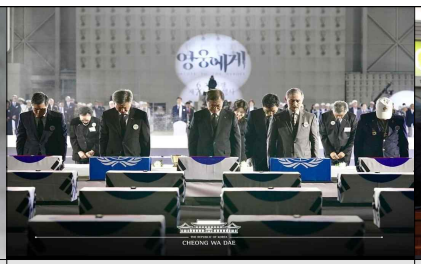
○ '**비무장지대**'로 **발굴지역 확대**, 국민캠페인 통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참여자 증가**로 전사자유해 신원확인 향상

  * (유해) 연 500구, (유전자시료) 8,900개, (신원확인) '19년 7위 → '20년 19위
  * '국민 캠페인' 전개,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확대 위한 포상금 법제화

○ 美.DPAA 보관 국군유해봉환, 6·25참전국 협력 MOU체결 (호주, 네덜란드) 등 **국제협력 지속 추진**



캠페인 '당신도 유가족일 수 있습니다'



6.25전쟁 70주년식 (국군유해 봉환)



한-네덜란드 양해각서 체결

❺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국방예산 투자 확대

○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방예산은 연 평균 7.0% 증가 ('18~'21년)**

  * ('18) 43.2조원 (+7.0%) → ('19) 46.7조원 (+8.2%) → ('20) 50.2조원 (+7.4%) → ('21) 52.8조원 (+5.4%)
  * 역대 정부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 : (이명박정부) 5.2% → (박근혜정부) 4.1% → (문재인정부) 7.0%

- '17년 (40.3조원) 이후 **3년 만**인 **'20년에 국방예산 50조원** (50.2조원) **돌파**

  * 국방예산 30 → 40조원까지는 6년 소요 ('05년 20.8조원 → '11년 31.4조원)

○ (방위력개선비) **핵·WMD 위협 대응, 전작권 전환 관련 핵심군사능력** 보강, **군구조개편 추진여건** 마련, **국방 R&D**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 확대

* ('18) 13.5조원 (+10.8%) → ('19) 15.4조원 (+13.7%) → ('20) 16.7조원 (+8.5%) → ('21) 17조원 (+1.9%)

○ (전력운영비) **현존전력의 100% 역량 발휘, 국방인력구조 정예화, 장병 복무여건 개선** 관련 예산 지속 확대

* ('18) 29.6조원 (+5.3%) → ('19) 31.3조원 (+5.7%) → ('20) 33.5조원 (+6.9%) → ('21) 35.8조원 (+7.1%)

❻ 코로나19 선제적 방역체계 운영 및 범정부 대응 지원

○ **군의 집단생활 특성을 고려한 고강도 감염차단 대책 시행**

- 보건당국보다 강화된 '**예방적 격리**' 기준 적용, **적극적 진단검사*** 실시, **군내 거리두기 단계 선제적 강화**** (11. 26. 부 2.5단계) 등 특단의 대책 시행

* 신병교육대 집단감염 발생으로 全 입영장정 PCR 검사 확대 실시 (1회 → 2회, '20.12월~)

** △장병 출타 통제(총 24주) △간부 이동통제 △회식·사적모임 연기/취소 △ 중점 일반관리시설 방문금지

○ **군의 가용자산을 총동원하여 국가적 재난 대응 총력 지원**

* 연인원(1.27.~12.31.) **47만 8천여 명** / 장비 **4만 2천여 대** / **892병상** / **생활치료센터 285실** 지원

- (신속지원체계) '**국방신속지원단**'을 운영('20. 3월~)하여 관계부처·지자체에 **방역·물자·수송·대민지원*** 등 **'One-stop' 서비스 제공** (18만 8천여 명)

* △미얀마발 방역물자 대구·경북 긴급수송 △ 일본 크루즈선 승선 국민 귀국 지원(대통령 전용기 투입) △ 화생방사 특수장비를 투입하여 확진자 발생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찾아가는 방역' 지원

- (의료지원) 병원·생활치료센터 등 의료현장에 **군의관·간호인력 5만 2천여 명, 군병원** (대구·대전병원 등) **음압병상 892개, 생활치료센터** (국방어학원) **285실** 지원

* △간호장교(75명)·의무사관후보생(96명) 조기임관 후 대구병원 투입 △간사생도(77명) 생활치료센터 지원 △ 대구병원에 공병인력(525명) 투입, 7일만에 98개의 일반병상을 303개의 음압병상으로 전환

- (행정·시설지원) 검역·통역, 선별검사소, 임시생활시설 등 **24만여 명 행정지원***, **국방어학원**을 **임시생활시설** ('20. 2월, 우한교민)·**생활치료센터**로 운영 (12월~)

* △인천공항 검역지원단(275명) △수도권 역학조사(특전사 간부 379명) △ 선별검사소(예비군지휘관 등 1,013명)

- (선도적 기술개발) '**혼합검체분석법** (Pooling)' **도입, 코로나19 앱 및 신속 분자 진단법 개발** 등을 통해 코로나19 신속검사 및 국민 의료편의성 향상

❼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적극적·선제적 지원체계 구축

○ **가축질병 확산 방지, 자연·사회재난에 총력 지원**

- 멧돼지 폐사체 수색·포획 활동, 도로·항공방역 등 민·관·군 합동으로 확산 차단
- 고성산불, 헝가리 유람선 사고, 청주 여중생 실종 및 호우피해 지역 패키지(인원·장비·물자 등) 지원
- 최근 4년간 대민지원

'20. 11. 30.기준

구 분	계	'17년	'18년	'19년	'20년
투입장병(명)	869,189	115,699	44,560	205,188	503,742
투입장비(대)	75,818	5,995	9,832	11,484	48,507

○ 해외재난 발생 시 국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국제협력체계 구축**

- '17~'19년 매년 6회의 국제회의 및 훈련 참가
- '18년 라오스(댐 사고), 인도네시아(지진), '20년 동티모르·필리핀(코로나19)에 구호물자 수송

□ 정책효과

❶ 군 인권상황 개선 및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조성으로 긍정적 효과 달성

○ 생명존중 문화확산으로 **인명손실 대폭 감소***,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 활동 등 **군내 인권보장 인식도 증가****

* 인명손실 / 자살사고 : ('19년) 86명 / 62명 → **('20년) 54명 (37%p↓) / 42명 (32%p↓)**

** 인권상황 개선 / 인권보장 수준 : ('19년) 86.2% / 59.6% → **('20년) 88.1% (1.9%p↑) / 65.3% (5.7%p↑)**

↳ 국방부-KIDA-케이스탯리서치(공동) '20년 군 인권실태조사 결과

○ **휴대전화 사용**으로 병사들의 **사회와 소통 및 심리적 안정 대폭 증가***,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 **긍정 인식 증가**** ('19·'20년 KIDA 주관 설문조사)

* 소통 / 심리안정 만족도 : ('19년) 65.8% / 57% → **('20년) 98.4% (32.6%p↑) / 97.5% (38.7%p↑)**

**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 긍정 인식비율 : ('19년) 53.4% → **('20년) 58.1% (4.7%p↑)**

❷ 여군 비중 점진적 증가, 군내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

○ **초임인력 확대로 여군인력 지속 증가**

* ('17년) 5.9%→('18년) 6.2%→('19년) 6.7%→**('20년) 7.5%**

* '20년 계획(7.4%) 대비 0.1% 초과 달성



여군 인력 확대

○ 군 조직 양성평등 의식과 평가 수준을 측정한 **양성평등지수 지속 상승***

* ('17년) 83점→('18년) 86점(3점↑)→**('20년) 88점**(2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설문조사('20.12.)

❸ 다양한 복무·근무여건 개선으로 신분별 만족도 지속 향상

○ **(병사)** 인상된 병 봉급은 **목돈 마련, 장병 자기개발, 부모님 가계부담 경감** 및 **군 신뢰도 상승**의 시너지 효과 발생, **군 급식 만족도 지속적 향상**

* 軍 생활 간 봉급 여유자금 저축시 1~2학기 등록금 수준(**약 350~700만원**)의 목돈마련 가능

○ **(직업군인) 수요자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주거지원제도 만족도*** **제고**

* 만족도 : ('17년) 57점 → ('18년) 66.5점 (9.5점↑) → ('19년) 72.5점 (6점↑) → **('20년) 71.6점 (0.9점↓)**
목표치인 70% 지속 달성 中 ↵

❹ 고강도 방역관리로 군내 감염 최소화 및 국가 위기 극복에 적극 기여

○ **군내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지속 유지**

* 군 확진자 10만명당 80명으로 민간의 69% 수준 유지 ('20. 12. 31. 기준)

○ **코로나19 발생 초기 성공적 방역 활동의 중추적 역할 수행**

- 대구·경북지역 감염 확산 시 ('20. 2 ~ 3월) 민간의 가용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군 인력·물자·시설 전폭 지원**을 통해 **사태 조기진화에 기여**

○ **3차 대유행 범정부 대응 긴급지원으로 '국민의 군'으로서 신뢰 제고**

- 동절기 국내 확진자 급증('20.11월~)에 따라 의료·행정인력, 치료병상 등 **軍 가용자원의 전방위적 지원**으로 **국가방역체계 보완**



간호사관학교 졸업생 조기 임관, 코로나 현장 긴급 투입



국군대구병원 등 4개 군병원을 국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150여 개 지역에 행정인력 지원

❺ 재난 피해지역 복구, 실종자 수색구조, 산불진화 헬기지원 등 국가재난상황시 마다 헌신적 지원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軍 이미지 형성

Ⅱ.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대통령님 강조사항 * 국군의 날 기념사('20. 9. 25.), 새해 첫날 초계비행('21. 1. 1.)

○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도 없다'

○ 우리 자신의 힘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평화를 만들고, 지키고, 키울 수 있음.

○ 군은 경계태세와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야 함.

□ 상황인식

○ 美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가운데,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실질적 조치 이행도 필요

○ 코로나19, 재난, 테러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대

○ 국민은 전작권 조기전환을 통한 책임국방 구현, 국방개혁 2.0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강한 군대로 거듭나기를 기대

□ '21년 국방정책 추진방향

○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겠습니다"
*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및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 "지속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 「국방개혁 2.0」 및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국방 혁신 강력 추진

○ "국민과 군장병이 자랑스러워하는 軍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 장병 복지·복무여건 개선 및 건강한 병영문화 정착, 국방 안전관리체계 확립

※ 이를 위한, 2021년 핵심추진 과제

①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②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 가속화 추진

③ 미래 주도 국방역량 구축

④ '한국판 뉴딜'의 국방분야 적용

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환경 조성

Ⅲ. 2021년 핵심 추진과제

①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 개요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한미 연합방위태세 기반 위에 안정적 군사상황 관리**

- 긴밀한 韓美 정보공유체계 유지 및 對北 감시태세 강화
  * 연합 ISR자산 통합운용, 예상되는 위협별 최적의 공동대응방안 수립·공조
- 北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韓美 공동의 억제·대응 능력 지속 강화
  * 韓美간 긴밀한 협의 下 '맞춤형 억제전략' 및 대응작전의 실행력 제고
- 현장중심의 즉응 군사대비태세 확립
  * 현장 대응능력 숙달, GOP 과학화 경계체계 개선 등 지속 보완

○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군사적 신뢰구축 및 한반도 평화정착 지원**

- 남북 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 지속 이행**
-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 및 유해발굴지역 확대**
- **JSA 비무장화 조치**와 연계, 남북공동근무 및 자유왕래 실현
- DMZ 內 **全 GP 철수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 마련 및 협의·시행**
- 유관부처와 연계하여 **한강하구 공동이용 추진 여건 마련**
  * 한강하구 우리측 지역 습지·생태조사 등 지원
- '남북군사공동위' 구성·운영 등 **남북군사회담 정례화** 추진
  *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9·19 군사합의' 전면 시행 합의 추진
- 정부의 **'DMZ 평화의 길' 추진** 및 '남북협력' 時 **군사적 지원**
  * DMZ 일대 동서 횡단노선 구축·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평화체험 기회 확대

○ **주변국 군사활동 증대에 대비한 억제·대응 능력 강화**

- 우리 해·공역 內 주변국 작전활동 감시 및 비례적 대응 등 적극적 대응태세 유지
- 우발적 군사 충돌방지를 위한 국방협력·협의 채널 적극 가동

○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대비 우리 軍의 임무수행능력 강화**

- 실종자 등 접경해역 비정상적 상황발생 대비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
- 軍대테러부대 장비·물자 보강, 제2 軍대테러 종합훈련장 추가 확보* 추진
- 국가적 재난극복 지원역량 강화, 해외 재난 긴급구호체계 확립

○ **국방 우주·사이버안보 역량 획기적 강화**

- 국방 우주 관련 조직 및 전문인력 보강노력 강화 지속
  * 합참·각 軍 본부 內 국방 우주업무 관련 부서(인원) 확대·신설('21. 1월)
- 합동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군사위성 확보 등 우주역량 강화
  * 軍 위성통신체계 전력화, 군사위성 추가 소요 검토 등
- 국방 사이버안보 임무체계 정립 및 사이버전력 전문화
  * 국방체계 보안강화를 위한 사이버보안제도 개선, 사이버전력 및 훈련체계 구축(계속)

○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전력 증강 추진**

- 한반도 및 잠재적 위협 대비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
  * 핵·WMD 위협 대응전력 확보 : 6조 3,802억 원(軍 정찰위성 등 50개)
-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작전적 대응능력 강화
  *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지속 보강 : 2조 1,162억 원(230mm 다련장 등 16개)

□ 기대효과

○ **군사적 안정성 유지를 통해 정부의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

○ 안보상황 변화에도 군 본연의 임무완수를 통해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 및 국민의 신뢰·적극적 지지 획득**

②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 가속화 추진

□ 개요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협정, 주한미군 전력 유지 등 **주요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전작권 전환 가속화 추진**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정책·전략적 對美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 여건 조성**

- 韓美 국방·군사 당국 간 **체계적·적극적인 협의체*** 운용 및 **韓美 공동평가**** **지속 시행**으로 조속한 **전작권 전환 추진**

  * 韓美 국방장관 회담 및 안보협의회의(SCM, 10월), 군사위원회회의(MCM, 10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반기 1회), 상설군사위원회(PMC, 반기 1회)

  ** 한미연합 공동평가,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 개최 등

- 국방개혁 2.0과 연계 下 **방위력개선비 지속 증액** 등을 통해 **우리 軍의 핵심군사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조기 확보**

- 우리 軍의 능력발전과 연계하여 **미국의 보완 및 지속능력 최적화**에 대한 공동연구 지속 시행

- 코로나19 등 제한사항 극복대책 마련으로 **우리 軍 주도의 미래 지휘구조를 적용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 적기 추진**

- **적극적 전략적소통(SC)**을 통해 대내·외에 전작권 전환의 당위성, **우리 정부와 軍의 의지·노력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주한미군 전력 유지)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美 신정부의 인식 등 감안**, 한반도 무력분쟁 방지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 역할 및 주둔 필요성에 대한 韓美 공동의 인식 제고**

- 주한미군 감축 또는 추가 전력 전개 등 전력태세 조정 관련 사안은 반드시 우리 정부와 긴밀한 협의 하에 결정되도록 지속 관리

□ 기대효과

○ **全軍의 역량을 결집, 韓美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의 유지 및 **전작권 전환의 가속화 여건 조성**

○ **우리 軍이 韓美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지휘능력과 역량을 구비**

3 미래 주도 국방역량 구축

□ 개요

○ 2040년대의 2차 인구절벽, 가변적 안보환경, 과학기술 발전 등 **국방여건 변화를 고려**한 **'장기 군구조 발전' 연구** 추진

○ 2050년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미래 국방방침을 제시할 「국방비전 2050」 기획** 추진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스마트 국방 달성**

- **(배경)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국방 全 분야에 적용**하여 도전적 안보환경에 대비하고 미래 전장 양상에 적응력 확보

- **(핵심 내용)** 국방운영, 기술·기반, 전력체계 등 **3대 분야 혁신**

① **(국방운영 혁신)** 첨단 ICT 기반의 **고효율 선진 국방운영 실현**

• **(실감형 훈련)** VR/AR 등을 활용한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 (~12월)
  * (육) 과학화 훈련장, (해) 손상통제 모의훈련체계, (공) 조종사 생환훈련체계 등

•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시범 구축** (6월~)
  * (해) 스마트 팩토리 구축 (6월~), (육·공) 스마트 팩토리 BPR/ISP 추진 (7월~)

② **(기술·기반 혁신) 초지능·초연결 기반**의 국방 인프라 조성

• **(스마트 부대)** 4차 산업기술 기반의 **초연결 부대 시범체계** 구축 (계속)
  * 육군 스마트 사단 (9사단 28여단), 해군 스마트 군항 (2함대), 공군 스마트 비행단 (20비)

• **(인공지능 활용)** 인공지능 기반의 **사이버 공간 우위 확보** (계속)

③ **(전력체계 혁신)** 첨단 기술 적용 **무기체계 고도화**

• **(미래 도전기술 제도) 선도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계속)
  * '신종 바이러스 대응 신속 해독 플랫폼 개발' 등 '20년 선정 과제 (28개) 등

• **(기술전력화) 30개 핵심전력 소요결정** 및 관련 기술 식별·반영 (계속)
  * 휴머노이드 로봇, 인공지능 지휘통제체계, AI기반 초연결 전투체계 등

- **(이행계획)**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신속 적용** 및 사업의 **체계적 관리 강화**
  - **ICT 전문 정책기관과 협력**하여 스마트 국방사업 관리역량 강화
  - 부처간 협력을 통해 **디지털 뉴딜 등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민·관·군 협력**을 통한 국방 R&D 효과성 제고
  - 기술 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21년 신규사업 발굴·선정** (~ 3월)
    * 국방비전 및 신규사업 반영, '스마트 국방혁신 종합추진계획서' 발간 추진 (6월)

○ **장기 군구조 발전 구상**

- **(배경) 2차 인구절벽 등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한 장기 군구조 발전 방향 연구 추진

- **(핵심내용)** 미래 군구조 **영향요인**을 고려한 **장기 군구조 대안 제시**
  * 인적자원·동맹·기술·전쟁양상 등 영향요인 가정 下 연구
  - (군사전략)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 가능한 군사력 운용개념 발전
    * 미래 군사과학기술 고려 전장기능별 전력 구성방향 검토
  - (지휘구조) 미래 전장환경에 적합한 **유연한 상부지휘구조** 발전
  - (부대구조)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각 군 부대구조** 연구
  - (병력구조) **인구감소를 감안한 적정 수준의 병력** 및 예비전력 규모, 민간수급 등 국방인력 확보 방식 검토 등

- **(이행계획)** '장기 군구조 발전' **기초분석서** ('21.6월) **및 정책서** ('21.12월) **작성**

○ **미래 국방전략을 제시**할 **「국방비전 2050」 추진**



- **(핵심 내용)** 국방 구성원 모두가 염원하고 공감하는 **미래 국방의 설계도, 미래 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

  • (역할) **국가비전**과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방의 본질적 가치**를 구현

  *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보위, 평화통일 뒷받침, 세계평화 기여

  • (비전설계) 국방 구성원이 공감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 국방의 모습(청사진)과 구현방향**

  * (구현방향) 미래를 주도하는 강한 국방력 건설 방향

> · (국방태세) AI·데이터 / 초연결 네트워크 기반의 통합지휘체계 발전
> · (강군건설) 드론봇 등 유·무인 전투체계, 우주·사이버 기반 작전체계 발전
> · (국방운영체계)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효율적 국방운영 패러다임 구축
> · (국방교류협력) 한미 동맹의 진화적 발전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 (군문화 창달) 행복과 안전이 조화된 병영환경 조성
> · (평화지원) 한반도 평화정착을 뒷받침하고 세계평화에 기여

- **(이행계획)** 「국방비전 2050」의 **정책화·제도화 추진('21. 6월 限)**

  * 군 내·외부 및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방기획문서와 연계성을 일치하고, 현행 및 미래 업무의 균형을 위한 정책·조직·시스템 진화

□ 기대효과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全 분야 적용**으로 고효율의 **강한 군대 건설**

○ 2040년을 목표로 국방개혁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장기 군구조 발전방향 제시로 관련 정책 및 제도화 기반 마련**

○ 2050년을 목표로 **미래를 창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전의 큰 틀 내에서 **각 군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국방 구성원들의 **꿈과 비전을 배양**함으로써 **강한 국방력 건설**

④ '한국판 뉴딜' 국방분야 적용

□ 개 요

국정 최우선 과제인 **한국판 뉴딜 추진**을 통해 **군을 혁신**하고, **국방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여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견인**

□ 주요 내용

○ **(필요성)** 코로나 이후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변화에 대비**하는 **한국판 뉴딜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군을 혁신하는 계기 마련**

○ **(디지털 뉴딜) 핵심업무 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 국방 구현**

- (DNA 생태계 강화) **Data·5G·AI 기술의 활용·융합을 강화**하여 **핵심 국방업무를 스마트화**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여 **사이버 보안 강화**
-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과학적 훈련 디지털 인프라 구축, 실감형 교육 콘텐츠 확충**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실전적 교육훈련 환경 조성**
- (SOC 디지털화) 정부의 **디지털 재난관리체계·스마트시티 정보를 공유**하여 **작전·재난 상황에 활용, 로봇·IoT·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군 물류체계** 구축

○ **(그린 뉴딜)** 정부의 인프라·에너지 녹색 전환에 맞춰 **軍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고, **그린 모빌리티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대**

○ **(안전망 강화) 軍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조사·환류체계 정립 등 **예방 중심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국방환경 조성**

□ 기대효과

○ 코로나 이후의 **구조적 변화에 적응·선도**하기 위한 **국방 제 분야의 자발적 혁신** 추진, **스마트하고 강한 군대 건설**

5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환경 조성

□ 개요

장병 복무여건 및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 개선, 제대군인 및 참전용사 예우, 재난상황 시 軍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장병들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국방환경을 조성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장병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 兵 봉급을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인상
  * 兵 봉급(병장기준) : ('21년) 608,500원 → ('22년) 676,100원 (+67,600원, +11.1%)
- **직업군인 처우개선** (대우군인수당 신설, 특수지근무수당 인상 등)
  * 대우군인수당 신설(중상사, 대위소령 / 월 기본급의 4.1%), 특수지역 근무자 기본금 인상 (6→9만원)
- 軍 복무 중 발생한 부상·장애에 대해 **현실적 보상체계 마련**
  * '군인재해보상과' 신설(3월),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 업무 이관(국가보훈처→국방부(재정단), ~12월)
- **軍 급식의 질 향상** 및 **병사 식당 민간위탁 시범사업** (부사관학교) 지속 추진
  * 장병 선호품목 확대, 채식주의자 등 급식 배려병사를 위한 신규 품목 도입(샐러드, 두유) 등
- 임무수행 보장 위해 **피복류 등 품질개선, 軍 일용품 현금 지급액 현실화**
  * 보온성이 향상된 패딩형 동계점퍼 보급 (全 병사), 컴뱃셔츠 보급기준 확대 (1→2벌) 등
  * 軍 일용품 현금지급액 인상 : ('20년) 월 7,870원 → ('21년) 월 11,550원 (+3,680원, +47%)

○ 軍 의료시스템 개편

- **국군외상센터를 정상 개원**하여 총상·폭발창 등 **외상 진료능력 확보**
  * 분당 서울대병원과 국군외상센터 협력운영 협약 체결 및 개원·운영
- **병사 軍 단체보험** 시행으로 **현역병** (상근포함)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 △ 관계부처 협의 △ 보험사 설명 △ 보험상품 설계 / 계약 → 하반기부터 적용
  * 민간병원 진료비 70% → 90% 지원 확대하여 본인부담 최소화

○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 발전**

- 전·월세 지원제도를 활용한 **간부숙소 지원제도 신설 추진** (1월 ~)
  * 간부숙소 대체 전·월세 지원제도 신설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발의 (2월), 기재부 예산 협의 (6 ~ 9월), 간부숙소 대체 전·월세 지원사업 시행 ('22. 1월)
- 노후·부족 간부숙소 개선을 위한 신축·리모델링 물량 확대 (12월)
  * '22년 이후 간부숙소 개선물량을 연평균 6,000여 실까지 확대 (12월)
- 중·고교 자녀를 둔 군인을 대상으로 **관사 퇴거유예 제도 확대** (1월)
  * (기존) 중·고교 2학년 2학기 ~ 3학년 자녀 부양자 → (확대) 2 ~ 3학년 자녀 부양자
- 주거시설 위탁관리 수탁기관 지정·운영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 추진** (1월 ~)
- **민간임대주택 전·월세 지원사업 물량 확대** (지속)
  * 향후, 관사 소요 8만여 세대 중 30% (약2.4만) 까지 대체 가능하도록 확대 추진 (중장기)

○ **제대군인 및 참전용사를 포용할 수 있는 지원대책 마련**

- 취업과 연계된 **맞춤형 직업교육 확대, 국방기술 창업교육과정 신설** 추진
- **중기복무자 전직 지원금 연차별 인상** 협의 추진 (보훈처 협업)
  * (현재) 중기자 월 25만원 / 장기자 월 50만원×각 6개월 → (개선) 중·장기 동일 월 90만원
- 공공 일자리 지속 발굴, 군경력 자격 우대방안 확대 협의·반영 (행안부 등)
  * 경찰특공대·해양경찰 분야 등 경력경쟁 채용 시 특수부대 인정범위 확대
  *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등에 비상대비 담당자 직위 신설·확대 추진 협의
- 비무장지대 유해발굴지역 확대,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능력 확충
  * 신원 확인센터 개소 (2월), 유전자 분석 정책자문 및 관련 전문인력 증원 등
- 국립서울현충원 內 **제 2충혼당** (호국영령 안치시설) **추가 신축**
  * '21년 12월 완공 예정, 총 32,256위 추가 안장 가능

○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

- 정부의 코로나19 백신의 성공적인 수송지원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 본부*'** 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대국민 접종지원 활동도 적극 지원
  * 질병관리청 內 범부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질병청장) 소속으로 설치·협업

- (수송지원)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본부'** 편성 및 운영

  • (편성) 관련분야 전문인력 중심 군인 및 공무원, 소방·경찰 등으로 구성
  * 수송지원 본부장 겸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공동부단장 : 육군 참모차장
  (중장 박주경, 前군수사령관)
  * 군·관·경·소방 인력 등 총 41명으로 편성 (군인 34, 공무원 4, 경찰 2, 소방 1)

  • (임무) **백신 유통 全 단계 상황관제·대응 임무를 수행하여 안정적인 접종지원**
  *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질병관리청)의 실행조직으로서 유통단계를 포함한 기획·계획 업무의 실행력을 보장
  - △ 유통업체 수송상황 관제 (공장/공항→ 보관장소 →접종기관) 및 호송지원
  △ 위기상황대응 (우발상황 조치, 도서·격오지 배송 등)

- (접종지원) 군 의료인력 지원 등 **대국민 접종지원** 활동 병행
  * △ 접종 인력(군의관, 간호장교) 및 시설(군병원) 지원 △ 접종인력 교육 △ 행정인력 지원 등 접종관련 제반사항 적극 지원

○ **선제적·적극적 재난대응 및 지원**

- 국방통합 재난관리정보 시스템 구축
  * 국방부·각 군의 재난관리정보시스템 일원화, 재난관리 의사결정 지원
- 재난지원 임무에 최적화된 장비·물자 확보
  * 재난대응부대 장비·물자 보유기준 정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 확보
- 코로나19 및 가축질병 확산방지, 자연·사회재난에 총력 지원
  *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의료·방역·역학조사 인력 투입 및 백신 접종 지원
  * 가축질병 확산방지를 위한 도로·항공방역 등 민·관·군 합동 조치 및 산불, 풍수해, 실종자 수색, 호우피해 지역 패키지화 지원 등 재난지원 활동 강화

□ 기대효과

○ **신분별 맞춤형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 추진으로 全 **장병의 복무 만족도 상승**

○ 군 발생 외상환자에 대한 **민간 의료수준의 군 병원 진료 서비스 제공**

○ **병사의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 감소** 및 **진료선택권 확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성공적인 예방접종 보장을 통해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

○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재난 발생시 **적극적 지원활동으로 국민에 헌신하는 군 이미지 구현**

Ⅳ. 2021년 '국방' 이렇게 바뀝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우리 軍은

○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하에 **정부정책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

○ **역사적인 '9·19 군사합의' 체결·이행**을 통해 **남북 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성과**를 달성

○ **국방개혁 2.0**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육성의 발판 마련**

○ **선진 병영문화 혁신**으로 **軍 복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

□ '21년도에도 우리 軍은

○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국방태세를 확립**

○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여,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추동력을 확보**

○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위해 **체계적·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추진**

○ 정예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개혁 2.0을 강력히 추진**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병영문화를 정착**함으로써,

□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별첨1 4년간 성과/21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 전력증강 ≫

○ **은밀하게, 강력하게 - 우리 기술로 독자 건조한 3,000톤급 잠수함**

우리 기술로 독자 건조한 3,000톤급 잠수함이 탄생했다. 이로써 우리 군의 잠항 능력과 무장 탑재능력이 월등히 향상되어 적의 턱밑까지 은밀하게 접근하여 공격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갖추게 됐다. 그리고 세계 12대 잠수함 자체 건조국으로서의 자긍심도 드높이게 됐다. 기존의 국외 기술을 도입해 건조했던 장보고급 잠수함(1,200톤급)과 손원일급 잠수함(1,800톤급)은 선체 규모가 작아 잠항 기간이 짧은 관계로 작전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승조원들의 생활 공간 또한 협소해 근무 환경이 열악했다. 이번 3,000톤급 잠수함 도입으로 식당·침대·화장실 등 생활 환경이 대폭 개선되었으며 승조원들의 근무 여건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기술의 성공은 우리나라 방산수출 경쟁력 향상과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도입…주변국 KADIZ 침범시 우리 군 대응 능력 크게 향상**

러시아·중국 군용기들의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주변국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여 우리 KF-16 전투기가 경고사격으로 대응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렇듯 불안한 동북아시아 정세 속에서 국민 불안감은 증대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군은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를 도입하여 우리 전투기의 대응시간을 1시간 이상 확장하여 주변국의 KADIZ 침범 사례에 대한 대응 능력을 증강시켰다.

≪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 9·19 군사합의 ≫

○ **최초의 DMZ 內 유해발굴…화살머리 고지에서 67년여 만에 돌아온 가족**

'9·19 군사합의'로 DMZ 內 유해발굴 사업이 최초로 진행되었다. 그 첫 번째 발굴지인 화살머리고지일대에 잠들어 있던 유해가 67년여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우리 측 유해발굴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故 김진구 하사(2사단 31연대 소속, '53. 7. 13일 전사)의 아내 이분애(90세) 님은 "죽어서라도 남편과 함께하고 싶어 무덤 없는 남편을 따라 나 또한 선산에 유해를 뿌려달라고 말해왔는데 이제라도 남편을 찾게 되어 행복하다"라면서 "남편의 시신조차 찾을 수 없던 지난 오랜 세월 가슴 아파하며 살았는데 이제라도 같이 묻힐 수 있게 되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 또 다른 신원확인자인 故 남궁선 이등중사의 아들 남궁왕우씨(70세)도 "67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둠 속에 혼자 외롭게 계시던 아버님께서 이렇게 빛을 보시게 되어 너무 다행"이라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남씨는 "아들로서 아버님에 대한 도리를 다한 것 같아 다행"이라면서 "다른 유가족분들도 저와 같은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드디어 밟게 된 우리의 땅 JSA…비무장지대 견학 가능**

'9·19 군사합의'로 JSA 비무장화 조치가 실현됨으로써 우리 국민들도 비로소 JSA 땅을 밟게 됐다. 분단의 아픔과 갈등의 상징이던 JSA도 이제 평화와 화합의 장소로 변모하고 있다. JSA 우리측 지역 견학에 참여한 대성동 초등학생 홍지성군은 "말로만 듣던 JSA를 직접 방문해 감회가 새로웠다"라면서 "판문점 견학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어 정말 좋았다"라고 감동을 표현했다.

≪ 21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전력증강 ≫

○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실시간으로 탄도탄 탐지·추적 가능**

잊을만하면 쏘아올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불안에 시달렸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탄도탄을 탐지·추적하는 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가 구축되었다.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II를 비롯한 철매-II성능개량, 패트리어트성능개량,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L-SAM) 연구개발 착수 등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전력이 획기적으로 증강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은 매년 열병식에서 신무기를 선보이고 있고,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 진행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나라는 얼마나 대응 준비를 하고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 그런데, 유튜브나 각종 언론매체에서 보여준 국내기술의 현무 미사일 발사 장면과 정확하게 표적을 명중시키는 모습은 안정감과 자긍심을 갖게 해준다.

≪ 21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한국판 뉴딜 국방분야 적용 ≫

○ **국방에 AI·빅데이터·VR·AR을 활용하여 군의 전투력 향상 기대**

국방부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적용하여 스마트하고 강한 군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AI 융합 해안경계 체계"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레이더·TOD·감시카메라 등의 데이터를 통합 학습함으로써 오인식을 최소화하고 주·야간 감시 효과를 획기적으로 향상하는 사업이다. 육군○○사단 해안대대 작전과장은 "해안경계 체계에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함으로써 군의 경계·감시체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의 구조·구난, 선박관리, 치안 유지 등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군은 실제 구현이 어려운 환경에 VR·AR 가상훈련체계를 도입하여 군의 전투력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특전사 부대원의 공수강하훈련 등 전술·전투훈련과 함정 손상 대처 훈련 등 장비 숙달 훈련에 VR·AR 기술을 도입하여 전통적 군사훈련을 디지털 과학화 훈련으로 전환시킬 것이다.